



1989년 가수 이수만이 'SM 기획' 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회사이다.
 'SM' 은 회사의 최초 설립자인 가수 '이수만'의 이니셜 이다.
 3인조 댄스 음악 팀이었던 '현진영과 와와' 라는 아티스트를 시작으로 강타, S.E.S., 보아,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샤이니, f(x), EXO, 레드벨벳, NCT 등 다수의 가수들을 배출하였다.
 스타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체계화하여 앞장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연예기획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보아를 시작으로 슈퍼주니어는 중화권을, 샤이니, 동방신기와 천상지희 The Grace, 소녀시대는 일본을 공략하며 해외 활동도 활발하게 하는 중이다.
 EXO는 아예 그룹 자체가 한국 유닛과 중국 유닛으로 나누어져 데뷔했다.

1990년대 초반 댄스가수로 활동하던 박진영이 데뷔 이후 프로듀싱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1997년 (주)태흥기획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기획사를 설립한 것이 JYP entertainment의 시작이다.
 이후 2001년 회사명은 SM, YG와 마찬가지로 박진영의 영문 이니셜을 따, 'JYP'로 변경 하였다.
 그 후 박기영, 린, 김동률을 매니지먼트한 흥승성과 동업을 하게 되었으며, 언론플레이의 귀재라고 불리는 흥승성은 JYP entertainment의 사장에 오르고, 그 후 박진영과 함께 god, 비, 별, 노을, 임정희, 원더걸스, JOO, 2AM, 2PM의 음반 프로듀싱을 성공시키면서 JYP entertainment는 2000년대 중반 메이저 기획사로 떠올랐다.
 2008년 흥승성 대표와 결별한 이후에도 미쓰에이, 백아연, 15&, GOT7, 트와이스, DAY6 등의 가수들을 꾸준히 배출하면서 명실상부 국내 3대 기획사 중 한 자리를 지켜나가는 중이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멤버였던 양현석이 프로듀싱 등을 맡아 운영하는 연예 기획사이다. 초기에는 양현석의 별명 '양군'을 딴 양군기획으로 영어로 첫 문자를 따서 YG로 부른다.
 지누션, 1TYM 등 초기에는 힙합을 주로 내세웠으며, 이 후 세븐의 데뷔와 M-Boat 소속의 R&B 가수들의 데뷔를 통해 흑인음악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회사로 발전하였다.
 빅뱅과 2NE1 등의 아이돌을 배출 하였고, 싸이, 워너, 아이코닉 블랙핑크 악동뮤지션, 이하이 등의 가수들을 키워 냈으며, 다수의 배우들도 속해있다.

더티 룽스 (Dirty loops)



커버 영상 하나로 인생이 바뀐 스웨덴의 3인조 그룹

2011년 7월 15일 유튜브에 레이디 가가의 Just Dance를 커버한 곡이 올라온다. 보컬/키보드와 베이스, 드럼 3인조로 구성된 새내기 밴드 '더티루프스'의 연주였다. 이 영상은 아무런 프로모션 없이 10만건의 유튜브 조회수와 1만건의 페이스북 공유 물결을 타면서, 음악 팬들의 주목을 끌게 된다. 계속해서 멤버들은 단지 '재미'로 저스틴 비버(Justin Bieber)의 Baby, 아델(Adele)의 Rolling in the Deep, 그리고, 저스틴 팀벌레이크(Justin Timberlake)의 Sexy Back 등을 통해 해체와 해석의 커버 곡들을 예술로 승화시킨다. 이런 작업들은 자연스럽게 거장 프로듀서 데이비드 포스터(David Foster)의 눈길을 끌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음반사와 계약을 이끌어낸다. 여기에, 퀸시 존스(Quincy Jones), 스티비 원더(Stevie Wonder), 그리고 네이튼 이스트(Nathan East) 등을 포함한 거물급 아티스트들이 더티 룽스의 연주에 극찬을 보내면서 밴드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준다.

	<p><u>조나 닐슨 - Jonah Nilsson [키보드/보컬]</u> 어린 시절부터 콘트라베이스와 클래식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하였고, 고등학교의 마지막 해에 재즈로 방향을 전환한다. 자유자재로 오르내리는 가창력과 키보드 연주 실력을 가지고 있다.</p>
	<p><u>헨드릭 린더 - Henrik Linder [베이스]</u>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자라면서 누가가 듣던음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음악들은 바로 록 밴드의음악이었다. 13살에 베이스로 전향하여하였고, 브레이크 브라더스, 트라이얼 테크 같은 퓨전 재즈 팀들의 음악을 들으며 재즈 공부를 하였다.</p>
	<p><u>아론 멜러가드 - Aron Mellergardh [드럼]</u> 베이스인 헨드릭 린더와 마찬가지로 재즈를 공부 하였고 중학교때 부터 친구였던, 조나 닐슨과, 헨드릭 린더와 함께 더티루프스를 결성하여 활동하게 된다.</p>